

‘1년 6개월 공백’ 한국에너지공단 총장…새 정부 해결 주목

2023년 사퇴 후 직무대행 체제
지난해 후보 3명 추천 후 ‘감감’
선임 절차·재공모 여부 등 주목

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오랜 기간
직무대행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에
너지공과대학교(켄텍) 총장 선임이 이
뤄질지 주목된다.

그동안 손을 놓고 있던 대학 이사회
가 정권 교체와 맞물려 총장 선임 절차
에 속도를 낼지, 또 어떤 후보를 선임할
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

11일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따르면 정
부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 온 윤의준
에너지공단 초대총장이 2023년 12월
자진 사임한 뒤 대학 정관에 따라 박진
호 연구부총장이 1년 6개월째 총장직무
대행을 맡고 있다.

지난해 11월 진행된 에너지공단 2대
총장 공모에서 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
한달여 심사를 거쳐 이사회에 추천할 3
명의 후보를 압축했지만, 탄핵정국과
조기 대선으로 인해 이사회 안전으로 오
르지 못했다.

관심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사회가
총장 선임 작업에 본격 착수할 지 여부
다. 특히 이사회가 지난해 후보추천위원
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 가운데 논의를
거쳐 1명을 추천할지, 아니면 3명의 후
보들 모두 ‘적임자 없음’ 결정을 내린 뒤
재공모에 들어갈지에 이목이 쏠린다.

이사회에 추천된 3명의 후보는 에너
지공단 총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박진
호 연구부총장과 포스텍 총장을 지낸 김
모씨, 전 국립대 총장과 국민의힘 당협
위원장을 지낸 정모씨다. 이중 정씨는
서울대 출신으로 2012년부터 충남의 한
국립대 총장을 4년간 지냈고 2019년 정
년퇴임 뒤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
적극적으로 참여해 윤석열 후보를 지지
했다. 이후 윤 후보를 따라 국민의힘에
입당한 경력을 갖고 있다.

당시 에너지공단 안팎에서는 국민의
힘 출신의 정씨가 3명의 최종 후보군에
오르자 정권의 ‘낙하산 총장’이 내정된
것 아니냐는 등의 우려가 제기됐지만,
곧바로 비상계엄 사태가 이어지면서 사
실상 총장 선임 절차는 물 건너갔다는
지적이 나왔다.

총장 선임 절차는 이사회에서 총장 후

보를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 동의와 산
자부 장관 승인을 거쳐 임명된다.

이사회는 정부 부처 관료와 전남도,
한국전력 계열사 추천 등 당연직 7명과
업계, 교수 등 선임직 5명 등 12명, 감사
(1명)로 구성돼 있으며 한전 사장이 이
사장이다.

앞서 지난해 7월 이사회는 총장 선임
계획과 함께 총장추천위 구성과 운영을
다른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.

추천위는 이사회(2명), 이사장과 산
업통상자원 장관 추천, 교수회의 선출
1명씩 등 모두 5명으로 구성했다.

총장 자격 요건으로 에너지공대를 세
계 일류 연구·창업 중심 대학으로 발전
시킬 수 있는 행정력과 추진력이 있는
자 등으로 규정했다.

에너지공단 관계자는 “총장 공백 사
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사회가 조속히
열려 후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학생
과 교직원들은 바라고 있다”고 말했다.

지역사회에선 “출범 4년차를 맞은 에
너지공대가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
록 역량을 갖춘 인재를 총장으로 선임
해야 한다”는 목소리가 나온다.

정근산 기자



김영록 지사, 취약층 여름물품키트 포장

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1일 도청 윤선도홀에서 열린 ‘우리전남 희망여름
책!책!책! 캠페인’ 출범식에서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여름물품키트를 포
전남도 제공

장하고 있다.

광주시-시의회 공방 ‘주택 공급 확대 조례’ 항배는

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
400%→540% 확대 핵심
이달 표결…법적분쟁 소지

광주시와 시의회의 공방으로 낙담
표류하고 있는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
률 완화 조례의 항배가 조만간 결정날
것으로 보인다.

주거 용적률 상향에 대한 양측의 입
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시의
회가 이달 말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해
표결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.

광주시의회는 오는 23일 임시회에서
전체 의원 간담회를 갖고 광주시가 재
의 요구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처리
방안을 논의한 뒤 30일 본회의에 상정

해 표결할 예정이다.

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 요구된 조례
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
의 2 이상 찬성하면 재가결할 수 있다.
재가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23명 중
최소 16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.

다만 조례안이 임시회에서 가결될 경
우 시와 시의회의 법적 다툼으로까지
변질 가능성도 있다.

지난 2월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
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업지
역 내 주거용도(주거복합 건물 주거
용, 준주택 생활숙박시설) 용적률을 현
행 400%이하에서 중심상업지역의 경
우 540%이하로 140% 상향하는 것이
 골자다.

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
면적의 비율로, 용적률이 높아지면

제한된 토지에 더 높고 밀집한 건물을
지을 수 있다.

광주시는 미분양 심화와 도심 불균
형, 도심 난개발에 따른 삶의 질 하락 등
을 우려하며 곧바로 재의요구권을 행사
했다.

시의회는 지난 3월 임시회에서 해당 조
례를 상정하지 않고 한 차례 보류했다.

양측은 공개토론회와 시민 의견 수렴
절차 등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
못했다.

광주시 관계자는 “우리 시는 해당 사
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우려와
반대의 뜻을 표했다”며 “일부 시의원들
과 접촉하며 설득하고 있다. 재가결이
이뤄질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
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”고 말했다.

김용현 기자

신민호 도의원 “‘전라도 천년사’ 수정·보완 출판해야”

“전남 독립운동사 축소·훼손”

광주·전남의 항일 독립운동을 충
분히 반영하지 못한 ‘전라도 천년사’를
수정·보완해 출판해야 한다는 지적이
제기됐다.

1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경제관광
문화위 신민호 의원(더불어민주당·순
천6)은 2024 회계연도 전남도 문화용
성국 소관 결산심사에서 “전라도의 역
사적 정체성을 담아야 할 ‘전라도 천년
사’가 광주·전남지역의 항일 독립운동
역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출판
되서는 안된다”고 주장했다.

신 의원은 “전라도 천년사 근대 4권



중 광주·전남의
독립운동사 서술
에서 국외 미주지
역 독립운동과 국
내 항일 투쟁 등
구체적인 독립운
동 활동이 대거
누락됐다”며 “이는 단순한 편집상의 실
수가 아니라 전남의 역사적 정체성과
독립운동 정신을 축소·훼손하는 중대
한 문제다”고 지적했다.

이어 “심지어 국가보훈청 공훈록에
수록된 전남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활동
내용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”며
“이는 지역민의 자긍심과 역사 의식 고

취라는 편찬 목적에도 어긋난다”고 부
연했다.

신 의원은 특히 “과거 논란이 됐던 일
본 고대사 부분만을 고쳐 추가 인쇄하
고, 나머지는 그대로 배포하겠다는 편
찬위원회의 입장은 결코 수용할 수 없
다”며 “전체적으로 누락된 역사와 왜곡
된 서술을 전면적으로 수정·보완한 후
본래 취지에 맞게 새롭게 출판해야 한
다”고 강조했다.

이에 전남도 문화용성국 강효석 국장
은 “추가로 위촉한 검증팀에서 검증한
내용을 토대로 누락되거나 미비한 부분
을 수정 보완해 ‘전라도 천년사’를 인
쇄하겠다”고 답했다.

정근산 기자

조옥현 도의원 “어린이 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제도화”

안전시설 강화 조례 대표발의

방호울타리 설치를 제도화하는 등
전남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시설
을 대폭 강화하는 지원조례가 만들어
진다.

1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경제관광
문화위 조옥현 의원(더불어민주당·목
포2)이 대표 발의한 ‘전라남도 어린이
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
안’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, 본회의
에 상정됐다.

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



돌진 사고를 예방
하기 위한 차량방
호안전시설(SB1
등급 이상 울타
리) 설치 근거를
마련하고,재정이
열악한 시군에 도
차원의 예산 지원을 규정했다.

조 의원은 “전남 전체 663개 보호구
역 중 차량 침입을 차단할 수 있는 SB등
급 방호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단 40여
곳(6%)에 불과하며, 이 또한 일부 시군
에만 국한돼 있다”며 “어린이 보호구역

의 보호시설 대부분이 보행자의 인도
이탈 방지 수준에 그쳐 사고 시 실질적
인 방호 효과도 없다”고 지적했다.

이어 “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시설
확충을 넘어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
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발걸음”이
라며 “전남지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
에 실효성 있는 안전시설이 강화될 수
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
겠다”고 강조했다.

개정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본
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.
정근산 기자

상무지구 FUNIS

광주 최대규모! 세상에 없던 완벽한 즐거움!

스크린골프와 볼링, Cafe & Lounge 등 프라이빗한 공간에서
365일 즐거움이 쏟아진다!

3F_SCREEN GOLF
골퍼들은 광주 최고 수준의 P-SCREEN 시스템 스크린을 12실과 부대시설

2F_SCREEN GOLF
골퍼들은 광주 최고 수준의 P-SCREEN 시스템 스크린을 11실과 부대시설

**Fun it, us
1F_CAFE & LOUNGE**
프라이빗한 소규모 모임과 미팅을 즐길 수 있는 4개의 공간

B1F.BOWLING
고급스탠드와 도리어인형 24대인 규모의 대형 볼링장

2 - 3F Screen Golf

1F Fun it, us Cafe & Lounge

B1 Bowling

FUNIS
062. 374. 8181
광주광역시 서구 천변로192(치평동) 구, 상무리조트컨벤션빌딩을